
성인 남·녀 탈모 자가인식에 의한 두피관리실태 연구

김미정¹, 정숙희², 심선녀^{3*}

경남정보대학교 미용계열^{1,2}, 경동대학교 의료뷰티학과^{3*}

The research about Scalp treatments by self-recognition of adult's losing hair.

Mijung Kim¹, Sookhee Jung², Sunnyu Shim^{3*}

^{1,2}Beauty College in Gyeongnam College of Information and Technology, Medical Beauty Department in Gyeongdong University

³Beauty College in Gyeongnam College of Information and Technology

요약 본 연구에서는 20대와 30대를 대상으로 성별, 직업별, 모발의 굵기 등 다양한 탈모의 원인들을 통한 자가인식의 정도를 파악하고 이에 따른 두피관리 행위의 실태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는 부산·경남지역에 거주하는 20대와 30대 26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는 SPSS version 12.0을 이용하였다. 연구문제와 관련하여 빈도, 백분율, χ^2 검정 등을 적용하였다.

이상의 연구 분석 결과로 탈모에 관한 자가인식이 두피관리의 행위요인으로 귀결시킴으로써 연구대상자의 행위정도를 가늠할 수 있었다. 이는 20대와 30대에서도 탈모에 관한 자가인식이 높을 수록 두피관리행위 또한 잘 실천하고 있다는 사실을 반영하는 것으로 탈모에 관한 자가인식은 두피관리와 밀접한 관계임을 알 수 있었다.

• **주제어** : 탈모, 자가인식, 두피관리, 두피건강, 헤어건강

Abstract The survey was carried out with a random sample of adults living in Busan and Gyeongnam. The collected material is used by the SPSS version 12.0. The frequency, percentage, examination were applied for studying. We separated the group of safety, general management, real hair management according to characteristic about scarp and hair problems. There is highly understanding about the hair problem that if someone has really sensitive scalp or who has dandruff or who has thin hair or who has someone has hair losing problem in their family. Usually, the group has highly understanding of hair problem, they consult about their hair and scalp with expert. They have a really good attention about the mass media(TV, Internet, Newspaper, Magazine) for scalp and hair health. They reduce using hair products. They always read hair product brochure first and use it. They don't eat fast food frequently. The survey has shown high levels of article. Now the research showed us that s have a strict connection between self-recognition and scalp treatments. That means someone has understanding hair problem then start treatment first.

• **Key Words** : Hair loss, self-recognition, Scalp treatments, Scalp health, Hair health

1. 서론

현대 사회는 생활양식이 더욱 다원화되고 생활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남·녀를 불문하고 신체 내적인 건강과 더불어 신체 외적인 건강, 미에 대한 관심이 더욱 증대되어

*교신저자 : 심선녀(ssn9933@k1.ac.kr)

접수일 2012년 5월 16일 수정일 2012년 7월 13일 게재확정일 2012년 8월 27일

가고 있으며, 건강함·청결함·아름다움·직장생활에서의 보다 나은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한 욕구가 점차 강해지고 있다[1].

모발은 외부의 충격으로부터 완충 작용과 자외선 차단, 한냉, 마찰 등 외부 자극으로부터 인체를 보호하며 신체에 불필요한 비소, 수은, 아연 등의 중금속을 흡수하여 체외로 배출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2]. 이러한 기능을 가진 사람의 모발은 성장기(anagen stage), 퇴화기(catagen stage), 휴지기 (telogen stage), 발생기(new anagen stage) 등 4주기의 헤어사이클(Hair cycle, 모발성장주기)을 거치면서 성장과 자연 탈모를 거듭한다[3]. 모발은 정상적으로 하루에 50~100개 정도가 빠지며 그이상의 모발이 빠지는 경우 의학적으로 탈모증(Alopecia)이라 정의 한다[4]. 과거에는 탈모라고하면 나이가 들어서 나타나는 노화의 개념으로 남성의 전유물로 생각되어 왔으나 요즘은 여성 탈모가 증가하는 것도 최근의 추세이다.

웰빙트렌드에 대한 문화적 흐름과도 맞물려 건강한 아름다움의 개념이 새롭게 인식되고 있으며 아름다운 스타일링을 위해서는 건강한 모발을 그리고 그 모발이 뿌리내리고 있는 두피를 관리해야 하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그동안 모발에 편중되어 왔던 분야를 넘어서 두피 관리를 통해 진정한 아름다움을 도모해야할 시점에 이르렀고 이미 선두주자들에 의해 단순한 모발관리를 넘어서 두피관리가 확산되고 있다.

현재 모발 관리에 사용되는 제품의 판매가 연간 1조원 이상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또한 탈모 인구의 증가와 더불어 국내 탈모시장은 급팽창하고 있고 탈모 관련 산업은 성장기에 잠입했고, 국내 탈모시장은 모발관리제품, 모발관리서비스, 탈모치료제, 가발, 모발이식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의약품과 생활용품업계에서는 관련 제품을 속속히 개발하여 출시하고 있다[5]. 국내 탈모 시장의 규모는 급격히 성장하고 있으며, 탈모에 관한 관심과 두피관리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실질적인 소비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가나 전문 관리 센터들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성인 남·녀를 중심으로 성별, 직업별, 유전 등 다양한 탈모의 원인들을 통한 자가인식의 정도에 따른 두피 관리행위의 실태를 파악하여 집단을 구분하고 각각 집단별 관리현황에 따라 건강한 두피환경을 만들고 탈모예방을 위한 정보 제공을 통한 올바른 두피모발관리법 및 탈모예방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2. 본론

1.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부산·경남지역의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직접 방문하거나 조사원을 통하여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배부 후 직접 기입하는 방식으로 설문지 300부를 배부하여 277부의 설문지를 회수 하였으며, 누락된 15부를 제외한 262부를 분석 자료로 이용하였다.

2) 측정도구

(1) 탈모에 관한 자가인식 척도

본 척도는 (주) 뷰토피아(두피·모발관리 전문회사) 두피·모발관리 자가진단 설문지를 사용하였으며, 문항은 3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두피·모발관리 자가진단 30문항 중 자신에게 해당되는 경우 1, 그렇지 않은 경우 0으로 체크하여 해당되는 개수가 10개 미만이면 안전집단, 10~19개 일반관리 집단, 20개 이상이면 욕도관리집단으로 구분하였다.

(2) 두피관리행위척도

본 척도는 황지영[6]의 설문지를 참고하여 총 10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척도는 전혀 아니다 1점, 거의 아니다 2점, 보통이다 3점, 그의 그렇다 4점, 매우 그렇다 5점의 Likert 5점 척도로 측정 하였다. 따라서 점수가 높을수록 두피관리행위의 실천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3) 통계분석방법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은 SPSSWIN 12.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 분석을 실시하였고, 탈모에 관한 자가인식에 따른 두피 관리 행위의 차이는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2. 연구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은 표1과 같이 나타났다. 성별은 여성이 72.9%로 남성이 27.1%인데 비해 2배 이상 많았음을 알 수 있다. 학력의 경우 고졸이 36.3%로 가장 많았고, 대졸이 35.5%, 전문대졸이 22.5% 순서로 나타났다. 대학원 이상 응답자의 경우 5.7%로 가장 적었

음을 알 수 있다. 결혼여부의 경우 미혼이 76.7%로 가장 많았고 기혼은 22.5%, 이혼, 별거 등은 0.8%로 나타났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항 목	구 분	빈도(명)	퍼센트
성별	남	71	27.1
	여	191	72.9
학력	고졸	95	36.3
	전문대졸	59	22.5
	대졸	93	35.5
	대학원이상	15	5.7
결혼여부	미혼	201	76.7
	기혼	59	22.5
	이혼, 별거등	2	0.8
소득수준	100만원미만	54	20.6
	100~200만원	95	36.3
	200~300만원	28	10.7
	300만원이상	11	4.2
	없음	74	28.2
수면시간	매일 6시간이하	70	26.7
	6~8시간	170	64.9
	8시간 이상	18	6.9
	기타	4	1.5
직업	학생	73	27.9
	사무직/관리직	52	19.8
	전문직	49	18.7
	자영업/서비스	28	10.7
	생산/기술직	7	2.7
	기타	53	20.2
합계		262	100.0

소득을 살펴보면 100~200만원이 36.3%로 가장 많았고, 없다가 28.2%, 100만원 미만인 20.6%, 200~300만원이 10.7% 순서로 나타났다. 300만원 이상의 경우 4.2%로 가장 작았음을 알 수 있다. 하루 평균 수면시간의 경우 6~8시간 수면을 취한다는 응답자가 64.9%로 과반수 이상 이었고, 6시간 이하가 26.7%, 8시간 이상이 6.9% 순서로 나타났다. 직업의 경우 학생이 27.9%로 가장 많았고, 기타가 20.2%, 사무직/관리직이 19.8%, 전문직이 18.7%, 자영업/서비스가 10.7% 순서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성격을 살펴보면 사교적이고 낙천적이라는 응답자가 37.0%로 가장 많았고, 안정적이고 성실하다가 31.7%, 분석적이고 신중하다가 16.4%, 주도적이고 책임감이 강하다가 14.9% 순서로 나타났다. 현재 건강상태를 살펴보면 보통이다가 41.6%로 가장 많았고, 건강한 편이다가 34.7%, 좋지 못한 편이다가 14.9% 순서로 나타났다.

2) 연구대상자의 두파모발관련 특성

두피·모발관련 특성을 살펴보면, 두피유형의 경우 지성/지루성이라는 응답자가 31.3%로 가장 많았고, 정상이 30.2%, 건성이 29.4% 순서로 나타났다. 민감성 응답자의 경우 9.2%로 가장 작았음을 알 수 있다. 비듬유무를 살펴 보면 비듬이 없다는 응답자가 64.5%로 있다(35.5%)는 응답자에 비해 더 많았음을 볼 수 있다. 비듬이 있는 경우 비듬의 상태를 살펴보면 건성비듬(마른비듬)이 32.1%로 지성비듬(끈적끈적한 비듬) 8.8%에 비해 더 높은 수치를 보였음을 볼 수 있다. 응답자의 모발 굵기를 살펴보면 모발이 가는 응답자가 41.2%로 가장 많았고, 굵다가 30.2%, 보통이다가 28.6% 순서로 나타났다. 가족 중 탈모로 고민하는 사람이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면 탈모로 고민하는 분이 없다는 응답자가 70.6%로 있다(29.4%)에 비해 높은 수치를 보였다.

[Table 2] The scalp and hair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구 분		빈도(명)	퍼센트
두피유형	건성	77	29.4
	지성/지루성	82	31.3
	민감성	24	9.2
	정상	79	30.2
비듬유무	있다	93	35.5
	없다	169	64.5
비듬상태	건성비듬	84	32.1
	지성비듬	23	8.8
	무응답	155	59.2
모발굵기	가늘다	108	41.2
	굵다	79	30.2
	보통이다	75	28.6
가족탈모여부	있다	77	29.4
	없다	185	70.6
합계		262	100.0

3) 두피·모발관련 특성에 따른 탈모에 관한 자가인식

두피·모발관련 특성에 따른 탈모에 관한 자가인식에 대해 살펴보면 안전집단이 59.2%로 과반수 이상의 응답률을 나타냈고, 일반관리집단이 28.6%, 육모관리집단이 12.2% 순서로 나타났다.

두피상태별로 살펴보면 건성은 안전집단이 58.4%로 가장 많았고, 지성 역시 안전집단이 51.2%로 가장 많았다. 민감성의 경우 안전집단, 일반관리집단, 육모관리집단 순서로 나타났는데 육모관리집단의 경우 29.2%로 건

성(11.7%), 지성/지루성(14.6%), 정상(5.1%)에 비해 높은 수치를 나타내었으며 정상의 경우도 안전집단이 74.7%로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내었다.(p=0.005)

[Table 3] Self-recognition of adult's losing hair due to scalp and hair's characteristic

구분	안전집단	일반관리	육모관리	전체	p	
두피 상태	건성	45 58.4%	23 29.9%	9 11.7%	77 100.0%	0.005
	지성/지루성	42 51.2%	28 34.1%	12 14.6%	82 100.0%	
	민감성	9 37.5%	8 33.3%	7 29.2%	24 100.0%	
	정상	59 74.7%	16 20.3%	4 5.1%	79 100.0%	
비듬 유무	있다	36 38.7%	34 36.6%	23 24.7%	93 100.0%	0.000
	없다	119 70.4%	41 24.3%	9 5.3%	169 100.0%	
모발 굵기	가늘다	48 44.4%	36 33.3%	24 22.2%	108 100.0%	0.000
	굵다	54 68.4%	20 25.3%	5 6.3%	79 100.0%	
	보통이다	53 70.7%	19 25.3%	3 4.0%	75 100.0%	
가족 탈모 여부	있다	35 45.5%	29 37.7%	13 16.9%	77 100.0%	0.014
	없다	120 64.9%	46 24.9%	19 10.3%	185 100.0%	
전체	155 59.2%	75 28.6%	32 12.2%	262 100.0%		

비듬유무를 살펴보면 비듬이 없는 경우 안전집단이 70.4%로 비듬이 있는 응답자(38.7%)에 비해 상당히 높은 응답률이었으나, 육모관리집단의 경우 비듬이 있는 응답자가 24.7%로 없는 응답자(5.3%)에 비해 4배 이상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여기서 비듬이 있을수록 탈모에 관하여 더 많은 인식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p=0.000)

모발 굵기 별로는 모발이 가는 경우 안전집단이 44.4%로 가장 많았고, 일반관리집단(33.3%), 육모관리집단(22.2%) 순서로 나타났다. 여기서 육모관리집단의 경우 모발이 가는 경우가 22.2%로 모발이 굵거나(6.3%) 보통(4.0%)인 경우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치임을 알 수 있다.(p=0.000)

가족 중 탈모로 고민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

보면 없다고 답한 경우 안전집단이 64.9%로 가장 많았으며 있다고 답한 경우의 응답자(45.5%)에 비해 높은 수치를 보인 반면 일반관리의 경우 탈모로 고민하는 가족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가 37.7%로 없다는 응답자(24.9%)에 비해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여기서 가족 중 탈모로 고민하는 사람이 없는 사람에 비해 있다고 답한 응답자들이 탈모에 관하여 더 많은 인식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p=0.014)

4) 탈모에 관한 자가인식집단에 따른 두피관리행위의 차이

(1) 전문가와의 상담여부

두피·모발건강을 위해 전문가(미용사, 두피관리사, 의사 등)와 상담을 하는지에 대한 여부를 살펴보면 상담을 전혀 안한다는 48.1%로 응답자의 절반에 가까웠고, 거의 안한다가 26.7%, 보통이다가 17.6% 순서로 나타났다. 여기서 상담의 빈도가 많아질수록 수치가 점점 낮아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집단별로 살펴보면 안전집단의 경우 전혀 상담을 안한다가 54.2%로 가장 많았고 일반관리집단(41.3%), 육모관리집단(34.4%)에 비해서도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내었다. 일반관리집단의 경우 상담을 거의 안한다는 응답자가 30.7%로 안전집단(25.8%), 육모관리집단(21.9%)에 비해 비교적 높은 수치를 나타냈고, 육모관리집단의 경우 보통이다가 25.0%로 안전관리집단(14.8%), 일반관리집단(20.0%)에 비해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p=0.049)

[Table 4] A consultation with trained counsellor

구분	전혀 안한다	거의 안한다	보통이다	가끔 한다	자주 한다	전체	p
안전 집단	84 54.2%	40 25.8%	23 14.8%	6 3.9%	2 1.3%	155 100.0%	0.049
일반 관리	31 41.3%	23 30.7%	15 20.0%	6 8.0%	0 0.0%	75 100.0%	
육모 관리	11 34.4%	7 21.9%	8 25.0%	4 12.5%	2 6.3%	1 100.0%	
전체	126 48.1%	70 26.7%	46 17.6%	16 6.1%	4 1.5%	262 100.0%	

(2) 두피·모발건강 관련 대중매체(TV, 인터넷, 신문, 잡지 등)에 대한 관심도

두피·모발건강에 관한 대중매체(TV프로그램, 인터넷, 신문, 잡지 등)에 대한 관심도를 살펴보면 보통이다가

37.8%로 가장 많았으며, 거의 관심 없다(23.3%), 전혀 관심 없다(21.0%) 순서로 나타났다.

집단별로는 안전집단의 경우 보통이다가 33.5%로 가장 많았으며, 일반관리집단의 경우 역시 보통이다가 42.7%로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육모관리집단도 보통이다가 46.9%로 가장 높았다.(p=0.007)

[Table 5] The attention about the mass media(TV, Internet, Newspaper, Magazine) for scalp and hair health

구분	전혀 관심없다	거의 관심없다	보통이다	조금 관심있다	아주 관심있다	전체	p
안전 집단	41 26.5%	42 27.1%	52 33.5%	17 11.0%	3 1.9%	155 100.0%	0.007
일반 관리	8 10.7%	18 24.0%	32 42.7%	15 20.0%	2 2.7%	75 100.0%	
육모 관리	6 18.8%	1 3.1%	15 46.9%	9 28.1%	1 3.1%	32 100.0%	
전체	55 21.0%	61 23.3%	99 37.8%	41 15.6%	6 2.3%	262 100.0%	

(3) 두피·모발건강을 위한 헤어용품(스프레이, 왁스 등)사용을 줄이는 정도

헤어용품(스프레이, 왁스 등)의 사용을 줄이는 정도에 대해 살펴보면 보통이다가 29.0%로 가장 많았고, 조금 줄이는 편이다가 21.0%, 거의 줄이지 않는다가 19.1% 순서로 나타났다.

[Table 6] Reducing level of using hair products for scalp and hair's health

구분	전혀 줄이지 않는다	거의 줄이지 않는다	보통이다	조금 줄이는 편이다	매우 줄이는 편이다	전체	p
안전 집단	32 20.6%	34 21.9%	41 26.5%	22 14.2%	26 16.8%	155 100.0%	0.016
일반 관리	8 10.7%	10 13.3%	25 33.3%	26 34.7%	6 8.0%	75 100.0%	
육모 관리	5 15.6%	6 18.8%	10 31.3%	7 21.9%	4 12.5%	32 100.0%	
전체	45 17.2%	50 19.1%	76 29.0%	55 21.0%	36 13.7%	262 100.0%	

집단별로는 안전집단의 경우 헤어용품 사용을 줄이는 정도가 보통이다가 26.5%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조금 줄이는 편이다가 14.2%로 많았으며 이는 일반관리집단(34.7%), 육모관리집단(21.9%)에 비해서 비교적 낮은 수

치를 볼 수 있다.(p=0.016)

(4) 두피·모발용 제품 설명서의 올바른 인지 및 사용 정도

두피·모발용 제품의 설명서를 잘 읽고 이해하고 올바르게 사용하는 정도에 대해 살펴보면 보통이다가 34.0%로 가장 많았고, 거의 아니다가 22.5%, 거의 그렇다가 19.5% 순서로 나타났다.

집단별로 살펴보면 안전집단의 경우 거의 아니다가 29.7%로 가장 많았으며, 일반관리집단(12.0%), 육모관리집단(12.5%)에 비해 2배이상 높은 수치임을 볼 수 있다. 육모관리의 경우 보통이다가 53.1%로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낸 반면 거의 그렇다는 9.4%로 안전집단(15.5%), 일반관리집단(32.0%)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치를 볼 수 있다.(p=0.000)

[Table 7] Using scalp and hair products correctly.

구분	전혀 아니다	거의 아니다	보통이다	거의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p
안전 집단	30 19.4%	46 29.7%	44 28.4%	24 15.5%	11 7.1%	155 100.0%	0.000
일반 관리	9 12.0%	9 12.0%	28 37.3%	24 32.0%	5 6.7%	75 100.0%	
육모 관리	3 9.4%	4 12.5%	17 53.1%	3 9.4%	5 15.6%	32 100.0%	
전체	42 16.0%	59 22.5%	89 34.0%	51 19.5%	21 8.0%	262 100.0%	

(5) 인스턴트 음식의 섭취정도

인스턴트 음식의 섭취 정도에 대해 살펴보면 보통이다가 46.6%로 응답자의 절반에 가깝게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가끔 먹는다와 먹지 않는편이다가 동일하게 19.1%로 나타났다.

집단별로 살펴보면 안전관리집단의 경우 인스턴트 음식을 먹는 정도가 보통이다가 43.9%로 가장 높았고, 먹지 않는 편이다가 22.6%로 그 다음으로 높았다. 이것은 일반관리집단(14.7%), 육모관리집단(12.5%)에 비해서 가장 높은 수치였음을 알 수 있다. 일반관리집단의 경우 인스턴트 음식을 먹는 정도가 보통이다가 50.7%로 응답자의 과반수 이상으로 가장 높았으며, 육모관리집단의 경우 인스턴트 음식의 섭취 정도가 보통이다가 50.0%로 응답자의 절반인 반면 전혀 먹지 않는다는 경우 0.0%로 응답자가 한명도 없었음을 알 수 있다.(p=0.012)

[Table 8] Instant food's amount of intake.

구분	전혀먹지 않는다	먹지않는 편이다	보통이다	가끔 먹는다	자주 먹는다	전체	p
안전 집단	17 11.0%	35 22.6%	68 43.9%	30 19.4%	5 3.2%	155 100.0%	0.012
일반 관리	4 5.3%	11 14.7%	38 50.7%	11 14.7%	11 14.7%	75 100.0%	
육모 관리	0 0.0%	4 12.5%	16 50.0%	9 28.1%	3 9.4%	32 100.0%	
전체	21 8.0%	50 19.1%	122 46.6%	50 19.1%	19 7.3%	262 100.0%	

3. 결과 및 고찰

본 연구에서는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성별, 직업별, 유전 등 다양한 탈모의 원인들을 통한 자가인식의 정도를 파악하고 이에 따른 두피관리 행위의 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262명을 대상으로 직접 기입방식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가인식과 두피·모발관련 특성에 따른 자가인식을 안전집단과 일반관리집단, 육모관리집단으로 구분하였다. 이에 안전집단은 59.2%, 일반관리집단은 28.6%, 육모관리집단은 12.2%로 나타났다.

안전집단을 제외한 나머지가 40.8%를 차지하는 것은 탈모를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 두피·모발관련 특성에 따른 자가인식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는 두피상태, 비듬유무, 모발굵기, 가족 중 탈모 유무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는 육모집단일수록 두피는 민감하며, 비듬은 있고, 모발의 굵기는 가늘고, 가족 중 탈모로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안전집단에 속한 사람들은 두피상태가 정상인 사람들이 많고, 비듬은 없는 편이며, 모발은 굵기는 굵으며, 가족 중 탈모로 고민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가 많았다.

선행 논문에서는 두피·모발관련 특성에 따른 탈모에 관한 자가인식에서는 두피상태, 비듬유무, 모발굵기, 가족 중 탈모유무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두피상태별로 살펴보면 안전집단에서는 정상인 74.7%로 가장 많았고 육모관리집단에서는 민감성이 29.2%로 [3]의 연구에서 탈모인의 36.2%가 지성두피이며, [7]의 연구에 의하면 지성두피를 가진 연구대상자가 모발의 탈락정도가 많다(28.3%)라고 답한데 비해 약간의 차이가 있었다. 모발의 굵기별로도 보면 안전집단에서는 모발이 굵다가 68.4%, 보통이다가 70.7%로 대부분이 이

에 속했고, 육모관리집단에서는 모발이 가늘다가 22.2%로 가장 많이 차지했다. 이희경[3]의 연구에서 탈모인 중에서 모발이 가늘고 약함이 56.4%로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이 같은 결과는 탈모성 두피가 하나의 모공에 1개의 모발만이 존재하거나 빈 모공인 상태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모발이 점점 가늘어 지고 힘이 없어 보이는 것이 특징이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가족 중 탈모로 고민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는 [4]의 탈모량이 많을수록 탈모인 가족이 많다는 연구와 [3]의 탈모인의 경우 주변 가족의 탈모인 수가 많다는 연구에서 볼 수 있듯이 안전집단에서는 가족 중 탈모로 고민하는 사람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가 45.5%이고 아닌 경우가 64.9%인데 반해 육모관리집단에서는 가족 중 탈모로 고민하는 사람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가 16.9%로 아닌 경우 10.3%에 비교해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3. 집단별 자가인식에 따른 두피관리행위를 문항별로 분석한 결과는 “두피·모발건강을 위해 전문가와 상담한다, 두피·모발 관련 대중매체(TV,인터넷, 신문, 잡지 등)에 관심이 많다, 전문제품을 구입해서 사용한다, 헤어용품의 사용을 줄인다, 두피·모발용 제품설명서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사용하는 편이다, 인스턴트 음식을 자주 먹지 않는다, 모든 문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는 탈모에 관한 자가인식을 문항별로 구분하여 알아보았는데 각각의 집단이 그에 맞는 두피관리행위를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육모관리집단은 두피·모발건강을 위해 전문가와 상담하는 정도, 두피·모발과 관련된 대중매체(TV,인터넷, 신문, 잡지등)에 대한 관심도, 두피·모발건강을 위한 전문제품의 구입, 인스턴트 음식과 자극적인 음식의 섭취를 줄이려고 하는 경향이 안전집단이나 일반관리집단의 두피관리 행위와 비교해 볼 때 비교적 높은 편임을 알 수 있는데, 이는 [8], [9] 연구에서와 같이 탈모에 경험이 있을수록 관심도가 높고, 자각증상과 심리적 부담을 많이 느끼며 이들은 탈모에 관해 인식이 높을수록 두피관리를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 분석 결과로 탈모에 관한 자가인식이 두피관리의 행위요인으로 귀결시킴으로써 연구대상자의 행위정도를 가늠할 수 있었다. 이는 성인 남·녀의 탈모에 관한 자가인식이 높을 수록 두피관리행위 또한 잘 실천하고 있다는 사실을 반영하는 것으로 탈모에 관한 자가인식은 두피관리와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REFERENCES

- [1] Chung Sook-hui et al., "Hair Care Behavior by Self Diagnosis on Scalp and Hair Conditions among Women,"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osmetology, Vol. 10, No. 3, pp. 269, 2004.
- [2] Yoon Joo-hwa, "A Study of Scalp and Hair Care among Korean Women," Graduate School of Industry Information of Nambu University, master's thesis, 2005.
- [3] Lee Hui-gyeong, "A Statistical Review on Hair Loss and Study on Hair Loss Care," Graduate School of Distance Learning on Cosmetic Industry of Sookmyung Women's University," master's thesis, 2005.
- [4] Cho Nam-choon, "A Comparative Analysis of Hair Conditions and Hair Care, Dietary Habit, Stress Level and Family History between Hair Loss Patients and Those without Hair Loss," Graduate School of Medicine and Food of Chung-Ang University, master's thesis, 2005.
- [5] Kim Soo-mi, "A Study of Improvement of Competitiveness of Scalp and Hair Loss Product Brand for Beauty Salon Only," Graduate School of Sookmyung Women's University, master's thesis, 2007. / Kim Ji-hyeon, "A Study of Customer Satisfaction on Scalp and Hair Care Shop and Development Plan," Graduate School of Distance Learning of Sookmyung Women's University, master's thesis, 2005.
- [6] Hwang Ji-yeong, "A Study of Hair Care Practices and Hair Care Behavior among Women," Graduate School of Social Development of Chung-Ang University, 2000.
- [7] Oh Gang-soo, "A Study of Perception on Scalp and Hair Care," Graduate School of Social Culture of Hannam University, master's thesis, 2006.
- [8] Hyeon Ae-ja, "A Study of Hair and Scalp Care by Scalp Clinic Patients and Determinants of Use of the Service,"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of Inje University, master's thesis, 2004.
- [9] Moon Yeong-ran, "A Study of Perception and Attitude on Scalp and Hair Care among Office Workers," Graduate School of Distance Learning on

Cosmetic Industry of Sookmyung Women's University, master's thesis, 2003.

저자소개

김 미 정(Mijung Kim)



- 2002년 2월 : 고신대학교 (보건학사)
- 2007년 8월 : 고신대학교 (보건학석사)
- 2007년 3월~현재 : 경남정보대학교 미용계열 외래강사

<관심분야> : 미용보건

정 숙 희(Sookhee Jung)



- 2001년 8월: 고신대학교 (보건학석사)
- 2008년 2월 : 고신대학교 (보건학박사)
- 2005년 3월~현재 : 경남정보대학교 교수

<관심분야> : 미용보건

심 선 녀(Sunnyu Shim)



- 2001년 8월 : 고신대학교 (보건학석사)
- 2007년 8월 : 고신대학교 (보건학박사)
- 2003년 3월 ~ 현재 : 경동대학교 교수

<관심분야> : 미용보건